

광주·전남 지역민 22만9천명 삼성전자 주식 보유

삼성전자·카카오·포스코·한전·현대차 순 많이 소유 코스닥에선 에코프로비엠 1위...투자자 50대 가장 많아

광주·전남지역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의 '광주·전남지역 2023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보유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한 지역민은 22만 8995명으로, 유가증권시장 주식 가운데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 주식은 이른바 '대장주'로 반도체 분야

대표 주다. 광주와 전남은 타 지역 대비 '테마주' 몰림 현상이 있는 만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지역민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카카오(8만 2847명), 포스코홀딩스(4만 2986명), 한국전력공사(4만 227명), 현대자동차(3만 8281명) 순으로 지역민들이 많이 보유한 주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만 7028명의 지역민이 에코

프로비엠을 보유해 가장 인기 있는 주식으로 나타났다. 이어 에코프로(1만 7413명), 포스코디엑스(1만 3323명), 카카오게임즈(1만 2365명), 엘앤에프(1만 1049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주 열풍이 불며 이차전지주 쏠림 현상까지 나타났는데, 이는 증시 전체의 변동성이 크더라도 코스닥에서 이차전지 테마주를 대체할 종목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 중 상장법인 개인 소유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경제허리'로 불리는

40~50대 연령대가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투자자(69만9931명) 중 50대가 16만 6882명(23.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5만 519명), 30대(11만 7480명), 60대(9만 8516명), 20대(8만 2653명) 순으로 많았다. 소유 주식수 별로 봐도 50대 투자자가 8억 1809만 주로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전체 소유 주식수 중 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5억 1099만주-23.0%), 60대(5억 740만주-22.9%), 30대(1억 6985만주-7.6%) 순이었다.

이는 연령별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여 여유 소득이 많고, 어느정도 욕에서 벗어나는 시기인 중장년대에서 주식을 많이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식투자자들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 큰 차이가 없었다. 광주·전남지역 전체 투자자 중 37만 8369명(54.1%)이 남성이었고, 32만 1562명(45.9%)가 여성이었다. 성별별 소유주식수는 남성이 15억 2105만주(68.5%), 여성이 6억 9924만주(31.5%)로 투자자 수 대비 보유한 주식 양에서 2배 이상 차이가났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효성티앤씨 '친환경 바이오 원료' 미래 신산업 키운다

베트남에 1조원 투입 연산 20만t 바이오 BDO 생산공장 신설

전 세계 스판덱스 1위 기업인 효성티앤씨가 친환경 바이오 원료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미래 신사업 육성에 나선다. 효성티앤씨는 지난달 30일 베트남 남부 바리우붕파우성 푸미 2공장에서 열린 '바리우붕파우성 비전선포식 및 투자승인서 수여식'에서 바리우붕파우성 정부로부터 '효성 BDO(부탄다이올) 프로젝트' 투자 승인서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BDO는 스판덱스 섬유를 만드는 PTMG(폴리테트라메틸렌글리콜)의 원료 등에 쓰이는 화학 소재다. 최근에는 스판덱스 섬유 외에도 자동차 내장재, 포장재와 같은 생분해성 수지를 비롯해 신발 수축, 산업용 컴파운드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사용처가 넓어지고 있다. 바이오 BDO는 사람수수나 옥수수 등에서 나오는 당을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석탄 등

기존 화학 원료를 100% 대체한 제품이다. 효성티앤씨는 총 1조원을 투입하는 이번 투자로 연산 20만t의 바이오 BDO 생산공장을 신설해 베트남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스판덱스 공장을 확보한다. 특히 원료부터 섬유에 이르기까지 수직계열화를 통한 바이오 스판덱스 일관 생산체제를 세계 최초로 갖추게 됐다. 효성티앤씨는 우선 2026년 상반기부터 연산 5만 t 규모의 바이오 BDO 생산과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GGM '전기차 양산 D-100' 점검회의

기반시설 구축·사원 채용 등 순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 전기차 양산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GGM은 3일 '성공적 전기차 양산 D-100' 점검회의와 결의대회를 열고 성공 생산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GGM에 따르면 캐스퍼 전기차는 지난 2월 5일 시험생산에 돌입한 이후 순조로운 공정상태를 보이고 있다. GGM은 전기차 생산 기반 시설 구축을 시작으로 시 운전, 시험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20일 50여 명의 사원이 입사할 예정으로,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캐스퍼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캐스퍼보다 전

장기 길어졌다. 1회 배터리 충전 시 주행거리도 경쟁 차종보다 많이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GGM은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되면, 하반기 생산예정인 캐스퍼 2만4500대 중 70%를 전기차로 채워나갈 계획이다. 만약 캐스퍼 전기차의 국내의 판매가 증가하면 현재 생산체제인 1교대 방식을 2교대로 확대해 전체 생산량을 늘릴 방침이다. 윤용현 GGM 대표이사는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돼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전기차 생산을 준비해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것은 물론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무결점 최고 품질의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겠다"며 "이를 위해 회사 설립, 존속, 발전의 근간인 '노사 상생발전 협정서'를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 모든 임직원이 상생 협력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종합업적평가 우수농협 시상



2023년 종합업적평가 우수상을 수상한 광주 관내 농협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2023년도 농·축협 종합업적평가에서 북광주농협(조합장 구상봉)과 임곡농협(조합장 이재만)이 우수농협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농·축협 종합업적평가'는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가장 권위있는 평가로, 전국 111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유형과 사업규모에 따라 그룹을 나눠 농·축협 경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농협을 선정, 시상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본부 관내 농협 중 도시형에서는 북광주농협이, 농촌형에서는 임곡농협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현호 본부장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고객 조합원을 위한 농협 본연의 사업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희망농업·행복농촌' 구현을 선도하는 광주지역 농협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경총 소규모 사업장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 ㈜하원 회장)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동 안전관리자가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경총은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4월 말까지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소벤처부 '미리 온 동행축제' 매출 631억

한달간 봄철 소비 진작 행사 내달 1~28일 동행축제 본행사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동행축제에 앞서 지난달 한 달간 진행한 '미리 온(ON)' 동행 축제에서 매출 631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3일 밝혔다. 11번가, 위메프, 네이버쇼핑, 공영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배달의민족 등 35개 온라인 채널 608억원과 행복한백화점 특가기획전,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채널 23억원이다. 미리 온은 다음 달 동행축제에 앞서 개최된 온라인 중심의 사전 행사로 '신학기 준비'와 '봄맞

이 대형소매 집 꾸미기' 등을 주제로 1700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선보였다. 중기부는 중소·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지원해 내수 진작을 모색하는 동행축제 본 행사를 내달 1~28일 개최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미리 온 행사로 의미 있는 매출을 달성했다"며 "다가오는 5월 동행축제가 미리 온의 열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마감한 동행축제 참여기업 공개 모집에서는 200개 모집에 956개가 신청해 4.7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모델이 AI 기반으로 연결성과 사용성이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AI 기능 강화 비스포크 라인업 공개

AI 비전·보이스·데이터 기술 활용

삼성전자가 한층 진화한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2024년형 비스포크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3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신제품 론칭 미디어데이 '웰컴 투 비스포크 AI'를 열고 AI 기반으로 연결성과 사용성이 향상된 신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고성능 AI 칩이나 카메라, 센서를 탑재한 비스포크 AI 제품은 스마트싱스의 초연결 생태계 안에서 AI 기능을 연결한다. 한층더 스마트한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부회장은) "카메라 센서를 통한 AI 비전 기술, 빅스비를 활용한 AI 보이스 기술, 소비자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는 AI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더 많은 시간을 삶을 즐기는 데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식재료 입고일을 인식하는 'AI 비전 인사이트' 기능을 토대로 식재료 관리를 도와준다. 특히 제품이 탑재된 7형 와이드 터치스크린 'AI 홈'을 이용하면 집안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화면 하나에서 제어할 수 있다. 공간별 기기 위치, 상태, 에너지 사용량을 한눈에 확인하고 기기를 제어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화 수신, 동영상·음악 감상도 가능하다.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는 계절과 사용 시간에 따라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AI 하이브리드 쿨링' 방식을 적용했다. 평소 고효율 AI 인버터 컴프레서만 단독 운전하고, 사용량이 급증하면 펠티어 소자가 함께 작동한다. 에너지소비효율은 1등급 최저 기준보다

30% 더 높다. '비스포크 AI 인덕션'은 'AI 끓음 감지' 기능을 갖춰 물이나 국·탕류가 끓어 넘치기 전에 미리 화력을 조절한다. 또 ▲170만개 사물 데이터를 학습해 알아서 장애물을 피하는 '비스포크 AI 스텝' 로봇청소기 ▲세탁물 무게·종류·오염도에 따라 최적의 동작을 하는 울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팩트' ▲빅스비 음성 인식으로 제어하는 '비스포크 AI 무풍 갤러리' 에어컨 등이 신제품 라인업에 포함됐다. 빅스비 음성 지원은 연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를 도입해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운 음성 제어도 가능해진다. 삼성전자는 2024년형 비스포크 제품에 휴대전화 리모컨 역할을 대신하는 '모바일 스마트 커넥트' 기능도 새로 도입했다. 에어컨,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는 휴대전화와 제품 간 거리가 10m 이내가 되면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리모컨 팝업이 뜬다. 비스포크 AI 기기는 알아서 에너지도 절감한다. 스마트싱스에서 AI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전력 사용량을 제품에 따라 추가로 최대 60% 줄일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06.97 (-46.19)
↓ 코스닥	879.96 (-11.63)
↑ 금리(국고채 3년)	3.341 (+0.008)
↓ 환율(USD)	1348.90 (-3.20)

대만 강진에 국내기업 촉각...직접피해 없지만 반도체 영향 관심

현지 판매법인 등 피해 아직없어 TSMC 생산차질 여부 주목

대만에서 3일 규모 7.4에 달하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도 현지 법인 등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대만에 판매법인 외에는 별다른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아 당장 뚜렷한 피해가 우려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다만 지진 규모가 매우 큰 데다,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진 관련 언론보도 등을 계속 주시하며 임직원들과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도 대만에 주요 사업장을 뒀거나 지진에 영향을 받을 만한 사업적 요인이 있는 계열사는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

하고 있다. 대만에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위 기업인 TSMC 생산공장이 있어 이번 지진이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TSMC는 지진 발생 후 생산라인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태다. 대만 당국은 지진 발생 지점과 거리가 있어 TSMC 공장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에는 일부 영향이 미치고 있다. 지진 여파로 일본 오키나와현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지면서 한국과 오키나와를 오가는 각 항공사 노선 운항이 잇달아 지연됐다. 현지 상황에 따라 결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만 주요 공항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대만 노선은 정상 운항되는 중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은 대만에 30억달러어치의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했다.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상당량은 SK하이닉스가

국내에서 제작해 엔비디아의 주문으로 대만 TSMC로 보내져 인공지능(AI) 연산작업의 핵심 요소인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장착되는 물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진으로 TSMC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국내 반도체업체들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사들의 대만 공사 현장도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은 대만 타이완인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 현장과 대만 제2도시 가오슝에서 진행 중인 푸본 아오지디 복합개발공사 현장 모두 피해 보고가 없으며 여진 피해 가능성 등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 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다단 복합화력발전소 증설 공사를 진행 중인 현대엔지니어링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전했다. /연협뉴스